

2020 새 설계

정현복 광양시장

# “지역 주력산업 혁신성장·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밝힐 것”



“2020년은 정책의 성과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전략과 응변창신(應變創新·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의 자세, 행동으로 시민들께 희망과 힘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더 활력 있고, 더 따뜻하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깊고 넓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경자년 새해 시정의 초점을 ‘일자리·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집중 개발, 도시환경 재생,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 핵심전략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다원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속·가공·열처리센터 건립과 함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중소기업연수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광간강 상용화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와 3월에 준공예정인 포스코메탈 2단

## 2차전지 클러스터 단지 조성

### 복합문화관광벨트 구축 박차

### 시민 소통 강화로 삶의 질 향상

계 양극재 생산설비와 연계해 세종·황금산단에 2차전지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특화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 추가 개발 등 광양항 발전전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본부 유치에도 전력을 쏟는다.

복합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민자유치와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섬진강 망덕포구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3개 권역에 대한 관광 명소 개발을 본격화 한다.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 거리는 4대 교량 및 해비치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삼화섬을 중심으로 한 이음길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섬진강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집라인을 설치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하고 배알도-망덕 해상보도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 예술을 더해 한국 창의예술고등학교 개교와 전남도립미술관도 서둘러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새해에는 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임신부 교통비·산후조리비·다둥이 출산 맘 행복 쿠폰 등을 지원하고, 광양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취업과 창업에 지원하는 ‘창의 공간’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열어 청년의 희망을 지원하겠다”며 “56개의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족 상담과 교육,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시의 주력작목인 매실은 ‘광양 매실 산업 제2전성기 구현’을 위해 매실 산업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도약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1만500여 농어가에 지급하는 공익수당도 차

## 2020년 주요 사업은

- ▲2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드론 산업 육성
-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
- ▲어린이 테마파크 시설설계 및 국비확보 추진
- ▲섬진강 질·라인 설치
-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 ▲보육재단 정기후원 2만 계좌 조기 달성
- ▲청년지원센터 개관

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은 물론 저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 하겠다”며 “초남공단과 신금산단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 중심의 상생·소통 시정을 실천하겠다”며 “광양 해피데이, 월탁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시장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스마트 도시계획’ 전남 첫 국토부 승인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도시 경쟁력 갖추기 발판 마련

광양시는 교통, 재난, 에너지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이 전남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란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뜻하며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융·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은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부서 면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생활, 관광, 안전, 행정, 인프라 5개 분야 30개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IoT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로드맵이 담겨있다.

분야별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는 ‘스마트 쓰레기통 포인트 적립시스템’, ‘AR 기반 길안내 서비스’, ‘등산로 안전비상벨’, ‘AI 기반 민원상담’, ‘스마트 주차

공유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또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와 IoT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을 통해 도시 내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분석해 시민이나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도 반영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도시계획 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마트 도시 구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스마트 도시 구축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광양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전남에서는 최초로 스마트 도시계획이 승인 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 지원을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뜻한 한 끼’ 어린이 식당. <광양시 제공>

## 31일까지 ‘따뜻한 한 끼’ 어린이 식당 운영

### 市, 오네뜨 행복마을 학교서

광양시는 광양읍 지역공동체인 오네뜨 행복마을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따뜻한 한 끼’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한 끼 어린이 식당은 방학기간 점심 해결이 어려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말 선착순 접수를 통해 50명을 모집했으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점심을 제공하게 된다.

광양시에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어린이 식당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양읍 오네뜨@ 주민공동체인 오네뜨 행복마을 학교에서 발 벗고 나서서 사랑나눔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된 어린이 식당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된다.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방학 기간동안 운영되는 어린이 식당에서 아이들의 점심 해결은 물론 영화감상, 마술놀이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오네뜨 행복마을 김동수 학교장은 “어린이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녀를 돌보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광양시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내의 모든 문제는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 광양항 공공데이터 개방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광양항 내 컨테이너 차량의 진출입 공공데이터를 월 단위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양항항만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업체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게이트 데이터를 추가로 연계해 개방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사와 운영사가 협력한 첫 사례이다.

해당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광양항’으로 검색하거나 공사 홈페이지의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백정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마케팅부장)은 “올해 컨테이너 차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광양항 내 컨테이너 반출입 데이터도 개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광양항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국민이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